존 오웬 『성경의 신적 기원·권위·자증하는 빛·능력에 관하여』(1659, 굴드판 전집 16권 1862, 영문)

오웬 · 5장 성령의 증거 · 전통 · 기적

존 오웬, 『성경의 신적 기원·권위·자증하는 빛·능력에 관하여』(1659), 5장. 굴드판 『존 오웬 전집』 16권(1862), 325~337쪽 무렵(OCR 쪽 표시 기준).

🧭 흐름 한눈에

오웬은 앞 장(4장)에서 성경이 스스로 빛과 능력을 내어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드러낸다고 논증했다. 이 장에서는 먼저 개혁파가 “성령의 증거 때문에 성경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정리한다. 성령의 증거는 귓속말도, 이유 모를 고집도 아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밝혀 말씀을 받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증언하신다는 뜻이다. 이 기초를 놓은 뒤, 그 기초에서 우리를 떼어 놓으려는 다른 근거들을 하나씩 저울에 단다. 로마 교회의 전통, 전통으로 전해진 기적, 사람들의 보편 전승, '교회'라는 이름, 역사적 신빙성 논증이 그것이다. 이 근거들은 모두 결국 성경에 기대고 있거나, 믿음의 기초로는 모자란다. 마지막으로 오웬은 두 가지를 묻는다. 모든 작품이 지은이를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그러지 못하겠는가? 성경의 신성이 사람의 판정에 달려 있다면 얼마나 끔찍한가?

📜 절별 정리

📜 1. 성령의 증거가 '아닌' 것

오웬은 다음 장에서 말씀의 타고난 탁월함에서 나오는 다른 증거들을 다루기 전에, 개혁파 신학자들이 늘 말해 온 '성령의 증거'를 먼저 정리한다. 이것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가장 큰 확증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걷어 낸다. 첫째, 로마 교회 쪽은 개혁파가 성령께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책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직접 들려주신다고 믿는 것처럼 몰아세운다. 하지만 성령의 증거는 그런 바깥 음성이나 속 음성이 아니다. 그런 체험은 드물게 주장될 뿐이고, 주장되면 대개 곧 착각으로 드러난다. 둘째, 왜 그런지 어떻게 그런지도 모르면서 목숨을 걸고 붙드는 확신도 성령의 증거가 아니다. 그런 확신은 전통이나 성장 환경만으로도 생길 수 있고, 헛된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게 만들기도 한다.

1. 성령의 일은 두 겹: 사람의 마음, 말씀 자체
2. 성령은 개인에게 '이 책이 말씀'이라 속삭이지 않는다
3.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만 말씀에 대해 말씀하신다
4. 이유 모를 고집스러운 확신은 성령의 증거가 아니다
5. 그런 확신은 전통·교육으로도 생긴다

> **(이 절에는 직접 인용 구절 없음)**
> 오웬은 여기서 개념의 오해를 걷어 내는 데 집중한다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지 않고 말씀에 관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결코 말하지 않는다.”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무엇 위에 세워졌는지도 모르는 결심과 확신,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증거가 아니다.”

📜 2. 마음에 하시는 성령의 일 — 빛을 주시고, 설득하신다

오웬은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에 하시는 일을 두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성령께서는 영적인 빛을 주셔서 마음이 말씀의 구원하는 진리와 위엄과 권위를 알아보게 하신다. 타고난 사람의 마음에는 어둠이 덮여 있다. 이 어둠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확실하게

있어도 믿음은 가질 수 없다. 둘째, 성령께서는 빛을 주시는 일과 함께,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싫어하는 비뚤어진 성향을 꺾고 마음을 설득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신다. 이 설득은 두 방식으로 일어난다. 하나는 영적인 지혜와 판단력을 주셔서 성경의 모든 부분이 서로 맞물려 서로를 증언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영적인 감각을 주셔서 말씀의 단맛과 능력을 마음과 양심으로 맛보게 하시는 것이다. 오웬은 이것을 해에 빗댄다. 해가 빛과 열을 낼 때 빛이 먼저 길을 내고 열이 뒤따르듯, 성령께서도 지성을 밝히시고 그다음 의지를 살리신다. 그러나 오웬은 곧바로 덧붙인다. 이 내적 사역은 실제로 일어나며 오류가 없지만, 지금 묻고 있는 '그 증거'는 아니다.

1. 타고난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어리석게 본다
2. 성령은 먼저 빛을 주셔 어둠을 걷으신다
3. 지혜를 주셔 성경 전체가 서로 증언함을 보게
4. 영적 감각을 주셔 말씀을 맛보게 하신다
5. 이 내적 사역은 '증거 자체'와 구별된다

> **고린도전서 2:14**
>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지 못하고 어리석게 여긴다 — 빛이 필요한 이유 (오웬은 장만 표시하고 헬라어로 인용)
>
>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 **유다서 1:19**
> “성령이 없는 자” — 타고난 마음의 상태 (헬라어 표현만 인용)
>
>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 **고린도전서 2:13**
>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 성령이 주시는 영적 판단력 (표현만 인용)
>
>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요한복음 7:17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알게 된다 — 판단력의 열매 (표현만 인용)

>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히브리서 5:14

“연단을 받아 분별하는 감각” — 영적 감각 (헬라어로 인용)

>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에베소서 4:21

“예수 안에 있는 진리” — 밝아진 지성이 보는 대상 (표현만 인용)

>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고린도전서 12:11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 — 성령 사역의 주권 (헬라어 표현만 인용)

>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어둠이 사람의 마음에 남아 있는 한, 그들은 말씀에 대해 선입견은 가질 수 있어도 믿음은 가질 수 없다.”

“성령께서는 해가 빛과 열을 내는 방식으로 일하신다. 빛이 먼저 길을 내고, 열이 뒤따른다.”

이제 오웬은 본론, 곧 말씀 자체를 향한 성령의 증거로 간다. 이것은 공적인 증거다. 한 사람의 영혼을 만족시킬 뿐 아니라, 말씀이 닿는 모든 사람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증거라는 뜻이다. 성령께서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며 말씀에 힘과 위엄과 권위를 주신다.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이 기대는 증거다. 무엇에 동의할 때 근거는 두 가지뿐이다. 증언하는 이의 권위, 아니면 진리 자체가 스스로 드러나는 자명함이다. 성경에서는 이 둘이 하나로 만난다. 같은 말씀 안에 성령의 증언이라는 권위와 그분이 하신 진리의 자명함이 함께 있다. 둘은 실제로는 하나이고 개념으로만 구별된다. 오웬은 단테의 시 한 대목(『신곡』 천국편 24곡으로 알려짐)에 깊이 감동했다고 고백한다. "옛 양피지와 새 양피지 위에 쏟아진 성령의 넉넉한 비, 그것이 내게 결론을 내려 준 삼단논법이다. 너무도 날카로워 그 앞에서는 다른 모든 증명이 무디게 보인다." 이어 오웬은 지금까지를 정리한다. 성경은 오류 없는 진리를 그 자체 안에 가진다. 성경의 권위는 그 진리에 세워져 있다. 그러므로 성경이 그 자체로 가진 권위는 곧 우리에 대한 권위다. 어떤 사람이 실제로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의 죄요 반역이다.

1. 성령은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공개 증언하신다
2. 권위 있는 증언과 진리의 자명함이 하나로 만난다
3. 성경의 권위는 그 진리에 기초한다
4. 성경 자체의 권위가 곧 우리에 대한 권위다
5. 따르지 않는 것은 죄요 반역이다

> **요한복음 17:17**
>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 성경은 오류 없는 진리를 그 자체 안에 가지며, 권위는 거기서 나온다
>
>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같은 말씀 안에 성령의 증언이라는 권위와, 그분이 하신 진리 자체의 자명함이 함께 있다.”

아는 한 내게는 믿음이 전혀 없다.”

📜 4. "우리는 성경을 로마 교회에게서 받았다"는 주장

기초를 놓은 오웬은 그 기초에서 우리를 떼어 놓으려는 주장들을 저울에 단다. 첫째 주장은 이렇다. 우리는 성경을 로마 교회에게서 받았고, 로마 교회는 전통으로 받았으며, 이것이 성경에 신빙성을 준다. 오웬은 먼저 '신빙성'이라는 말을 둘로 나눈다. 아무리 높아져도 '그럴듯함'의 범위 안에 머무는 신빙성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초를 묻는 지금 논의와는 상관이 없다. 초자연적이고 신적인 믿음의 단단한 기초라는 뜻이라면, 로마 교회가 그런 신빙성을 줄 수 있다는 말은 거짓이다. 성경이 그런 신빙성을 교회에게서 받아야 한다는 말은 신성모독이다. 교회를 교회로서 믿고 무엇을 받는다는 것은 그 교회의 권위 때문에 받는다는 뜻이다. 그 일이 그 자체로 “받을 만해서”가 아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가 같은 전통으로 받았다는 외경은 왜 받지 않는가? 우리가 그 전통을 골라 판단한다면, 로마 교회가 같은 전통으로 주장하는 다른 내용, 곧 “전통의 판단자는 로마 교회뿐”이라는 주장과 부딪친다. 게다가 로마 교회는 처음에는 히브리어 구약과 헬라어 신약만이 정본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지금은 그 사본들이 심하게 오염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자기 전통을 믿지 않는다고 화를 낸다.

1. '신빙성'은 그럴듯함인가, 신적 믿음의 기초인가
2. 교회 권위로 받으면 진리 때문이 아니다
3. 그렇다면 외경은 왜 안 받는가
4. 로마는 자기 전통의 유일한 심판자를 자처한다
5. 원문을 정본이라 하고 다시 오염됐다 하는 모순

> **디모데전서 1:15**
>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 진리는 그 자체로 받을 만해서 받는 것이지, 교회 권위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다 (헬라어 표현만 인용)
>
>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교회를 교회로서 믿고 무엇을 받는다는 것은, 그 교회의 권위에 기대어 받는다는 뜻이다.”

📜 5. "전통으로 전해진 기적 때문에 믿는다"는 주장

둘째 주장은 율법과 신약을 주실 때 일어난 기적 때문에 성경을 믿고, 그 기적은 보편 전통으로 전해졌다는 것이다. 오웬은 먼저 묻는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기록되지 않은 기적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그 많은 전통 가운데 기록되지 않은 기적 하나에 대한 희미한 소문조차 전해 주지 못하는 것은 왜인가? 전설은 빼고 말이다. 결국 그들이 말하는 기적은 성경 안에만 보존되어 있다. 그렇다면 성경을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는 그런 기적이 있었다는 것조차 신적 믿음으로 믿을 수 없다. 사람의 입으로만 전해졌다면, 기적 이야기는 시빌라의 예언 잎사귀처럼 세상에서 가장 거센 바람인 '사람의 입김'에 이리저리 흩날렸을 것이다. 사람은 허영되고 거짓되며, 속이기도 잘하고 속기도 잘하기 때문이다. 사람 수가 근거라면 천 년 넘게 수많은 사람이 전해 온 쿠란의 '기적'도 받아들여야 한다. 또 성경 기자 가운데 많은 이가 기적을 행하지 않았으니, 이 기준으로는 그들의 글은 버려진다. 기적은 새 교리를 가져온 사람에 대한 편견을 걷는 데 필요했다. 그러나 교리는 언제나 스스로를 증명했다. 사도들은 기적 없이도 많은 사람을 회심시켰고(사도행전 16–18장), 그들 때문에 교리가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교리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여졌다.

1. 기록 안 된 기적은 전통이 하나도 못 지켰다
2. 기적도 성경에 적혀 있기에 아는 것이다
3. 사람 수가 근거라면 쿠란도 받아야 한다
4. 기적은 전하는 사람에 대한 편견을 걷었다
5. 교리가 스스로를 증명했고, 지금도 그렇다

> **요한복음 20:30**
> 기록되지 않은 표적이 많다 — 그런데 전통은 그중 하나도 전하지 못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요한복음 21:25

다 기록하면 세상도 그 책을 감당 못 한다 — 같은 논점 강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사도행전 16–18장

사도들은 기적이 없던 곳에서도 많은 이를 회심시켰다 — 교리가 스스로 증명함 (오웬은 장 범위로만 표시)

"그들은 교리 때문에 받아들여졌지, 교리가 그들 때문에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다."

"성경은 사도들이 전할 때 가졌던 신성의 증거를 지금도 조금도 덜 가지고 있지 않다."

📜 6. 전통과 '교회'의 증언을 끝까지 따져 보기

이 전통이 성경을 받는 확실한 기초라고 자신 있게 주장되기에, 오웬은 한 걸음 더 들어간다. 전통(마소라)이란 지금 사람들이 앞선 사람들에게서 받은 사람의 보고다. 그것이 온 인류의 전통이라고 해 보자. 세계 회의를 열어 표를 모은다 해도, 개개인이 모두 틀릴 수 있으니 회의 전체도 틀릴 수 있다. 오류가 끼어들 수 없는 믿음의 기초는 되지 못한다. 일부 사람의 전통이라면, 그런 전통이 없다는 다른 사람들보다 그들을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내 이웃이라서라면, 다른 곳 사람들은 쿠란을 믿어야 한다.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이라고 답한다면, 그들이 교회라는

하나님께도 허락하지 않는 '자기 증언'을 사람에게 허락한다고 치자. 그래도 묻게 된다. 교회는 성경 안의 무언가를 근거로 그렇게 선언하는가? 아무 근거 없이 자기 권위로만 선언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뜻을 찾는 공부를 그만두고 그 사람들 말만 찾아야 한다. 다른 근거가 있다면, 하늘의 일은 성경으로만 알 수 있는데 무엇으로 판단했는가? 성경이 스스로를 드러낸 것을 근거로 삼는다면, 우리와 같은 말을 하면서 그 분별의 특권만 자기들 것으로 하려는 셈이다. 그 특권이 자기 지혜에서 나온다면, 자기들만 두 눈으로 보고 남들은 장님이라는 오만이다. 성령의 약속에서 나온다면, 그 성령은 모든 신자에게 약속된 성령이든지(그러면 누가 신자인지 성경이 판단한다), 아니면 사적인 계시이든지다(그러면 그들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 보증하는가). 결국 성경으로 가든지 점쟁이에게 가든지 둘 중 하나다(이사야 8:19-20).

1. 온 인류 회의도 오류 없는 기초가 못 된다
2. 이웃의 전통이 근거면 남의 쿠란도 근거다
3. '교회'라는 사실도 성경으로만 안다
4. 교회의 근거를 물으면 결국 성경으로 돌아온다
5. 성경으로 가든지 점쟁이에게 가든지다

> **이사야 8:19-20**
> 신접한 자에게 묻지 말고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라 — 사적 계시를 내세우는 권위 대신 성경으로 가야 한다는 결론
>
> 19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20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그들이 교회라는 것을 나는 성경 말고는 달리 알 길이 없다.”

구하든지 해야 한다.”

📜 7. 역사적 신빙성 논증, 홍수 뒤의 실험, 섭리의 섬김

오웬은 공정하게 우군의 논증도 다룬다. 얼마 전 한 유능한 학자(각주에 '워드 박사, 『에세이』'로만 표기됨 — 세스 워드로 보이나 확인 필요)가 이런 논증을 펼쳤다. 성경 기자들이 이름이 붙은 바로 그 사람들임이 확실하다. 그러므로 그 이야기가 참이다. 그러므로 그 교리가 참이다. 오웬은 이 논증이 사람들의 이성적인 물음을 채우는 데는 큰 힘이 있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믿음의 기초로서는 같은 종류의 다른 논증들처럼 부족하다. 사도들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고 거룩했고, 눈과 귀로 확인한 것만 썼다고 인정해도 마찬가지다. 그런 확신은 교회의 믿음을 떠받치기에 모자란다. 그들이 모든 말씀을 영감으로 받았고, 그 사실이 그들의 정직함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스스로 드러나야만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된다. 또 하나님은 성경을 글로 주시기 전에, 사람이 계시를 전통으로 얼마나 잘 지키는지 세상에 이미 실험해 보이셨다. 홍수 뒤 몇백 년 안에 사탄의 간계와 사람 마음의 허영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거의 사라졌다. 그래서 새 계시로 새 세상을 짓듯 교회를 다시 세워야 했다. 그렇다고 오웬이 교회의 역할을 지우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는 여러 수단과 함께 사람과 교회의 섬김을 써서 신구약 성경을 지키고 우리에게 전해 주셨다. 다만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이고 그 앞에 엎드리는 근거는 앞에서 말한 성경의 신적 기원의 증거들이다.

1. 역사 논증은 이성의 물음엔 큰 힘이 있다
2. 그러나 믿음의 기초로는 모자란다
3. 영감이 스스로 드러나야 기초가 된다
4. 홍수 뒤 전통은 계시를 지키지 못했다
5. 교회는 섭리의 도구일 뿐, 믿음의 근거는 아니다

> **(이 절에는 직접 인용 구절 없음)**
> 홍수 뒤의 지식 상실은 창세기의 홍수 이후 역사를 가리키지만, 오웬은 장절을 달지 않는다

"그 논증은 사람들의 이성적인 물음을 채우는 데는 큰 힘이 있다. 그러나 믿음의 기초로서는 부족하다."

📜 8. 맺으며 — 아무 보증 없이 성경을 받은 사람, 그리고 두 가지 생각

오웬은 전체를 한 사고실험으로 모은다. 사람이나 교회, 전통의 어떤 보증도 받을 수 없는 곳에서 누군가 성경을 손에 넣었다고 하자. 그는 성경을 믿어야 하는가? 성경은 곳곳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므로, 읽거나 듣는 사람은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해야 한다. 판단을 미루는 것은 영혼의 기능이 온전히 작동하지 못하는 연약함이고, 이 문제에서는 사실상 거부로 쳐진다. 그에게 믿을 의무가 있다고 답한다면, 성경 자체 안에 충분한 증거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의무가 없다고 답한다면, 하나님이 참으로 말씀하시는데도 사람은 그분을 믿을 의무가 없다는 말이 된다. 우리는 사람끼리도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 이어 두 가지 일반적인 생각으로 장을 닫는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출처를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 지은이를 드러낸다. 솜씨 좋은 장인의 작품도, 사람이 쓴 책도, 고전 저자의 문체도 제 손을 드러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진노를 걸고 받으라 명하신 책만 자기가 그분의 것임을 드러내지 못하겠는가? 하나님이 그런 흔적을 남길 수 없었다고 하면, 그분을 땅의 벌레보다 약하게 만드는 것이다. 남기려 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하나님께 선하심이 모자란다고 말하는 셈이니 그 이유를 대야 한다. 둘째, 성경이 권위를 자기 자신에게서 갖지 못한다는 생각은 성도에게 끔찍하다. 테르툴리아누스는 이교도를 이렇게 꾸짖었다. "너희 가운데서는 신성이 사람의 판정으로 저울질된다. 사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신은 신이 아니게 된다." 성경의 신성이 사람의 처분에 달렸다면 이와 무엇이 다른가?

1. 판단 보류는 연약함이고 사실상 거부다
2. 믿을 의무가 있다면 성경에 증거가 있는 것이다
3. 모든 작품은 지은이를 드러낸다

(이 절에는 직접 인용 구절 없음)

오웬은 하나님의 성품(제1진리, 선하심)과 창조 세계의 유비로 논증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참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에게 그분을 믿을 의무가 없다는 말이 된다. 우리는 서로에게도 이렇게 대하지 않는다."

"거의 모든 만드는 이가 작품에 제 흔적을 남기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그 출처를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성령의 증거

성령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확증해 주시는 일. 오웬은 이를 '마음에 하시는 일'과 '말씀 안의 공적 증거'로 나누고, 믿음이 기대는 곳은 후자라고 말한다.

조명(illumination)

성령께서 어두운 지성에 영적인 빛을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보게 하시는 일.

자증(自證)

성경이 다른 권위를 빌리지 않고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증명한다는 뜻.

공적 증거 / 사적 증거

공적 증거는 말씀이 닿는 모든 사람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증거이고, 사적 증거는 한 개인에게만 주어졌다는 음성이나 느낌이다.

전통(마소라)

손에서 손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 내려온 사람의 보고. 오웬은 히브리어

외경
로마 교회는 성경에 넣지만 개신교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구약 시대 이후의 책들.

열광주의
성경 밖에서 직접 받은 내적 빛이나 음성을 신앙의 근거로 삼는 태도.

권리상 / 사실상(de jure / de facto)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과 '실제로 그러한 것'. 성경은 권리상 모든 사람 위에 권위가 있고, 사실상 거부하는 것은 죄다.

도덕적 불가능성
논리로는 생각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성품(선하심·지혜)에 비추어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뜻.

제1진리(prima Veritas)
모든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이 쓰신 책이 자기를 드러내지 못할 리 없다는 논증의 출발점이다.

🔗 다른 책과 닿는 곳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성령의 증거는 개인적 속삭임도, 이유 없는 고집도 아니다.
- 성령은 마음을 밝혀 받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증언하신다. 믿음은 이 공적 증거에 기댄다.
- 로마 교회의 전통, 전승된 기적, 다수의 전통, '교회'라는 이름은 모두 결국 성경에 기대거나 오류 없는 기초가 되지 못한다.

-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람은 믿을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자기 권위를 스스로 드러내야 하고, 실제로 드러낸다.

🎬 이 장을 쓰는 편

- 성경론 13편 · 성령의 내적 증거 · 확신은 어떻게 오나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